

위험의 외주화, 태안화력 사망 또 불렀다

✎ 김한주 기자 | ⓒ 승인 2020.09.11 11:06

특수고용노동자 화물기사, 기계 깔려 사망

‘서부발전-신흥기공-특고노동자’ 외주화

공공운수노조 “외주화가 부른 참극”

고 김용균이 목숨을 잃은 태안화력에서 또다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태안화력 하청업체와 일일고용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노동자였다.



© 김한주 기자

재해자 이 모 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48분 제1부두에서 스크루 장비를 화물차에 결박하다가 장비에 깔렸다. 이 씨는 결박 작업을 혼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재해 직후 단국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됐지만, 오후 12시 39분 병원에서 끝내 사망했다. 11일 단국대병원 장례식장 측은 서울의 한 장례식장으로 시신이 옮겨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크루 장비는 배에 있는 석탄을 들어 올려 컨베이어벨트로 옮기는 기계다. 지게차로 이 장비를 화물차에 적재하고, 화물차 기사는 장비를 결박하는 작업을 한다. 결박 도중 한쪽 끈이 풀려 장비가 낙하했고, 이 씨는 여기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스크루 장비를 반출하고 정비하는 일은 태안화력발전소 업무다. 하지만 서부발전은 이 업무를 하청업체인 신흥기공에 발주했다. 시행자 신흥기공은 다시 특수고용노동자인 이 씨와 위탁계약을 맺고 운송을 맡겼다. 복잡한 고용구조, 위험의 외주화가 다시 참극을 부른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 원청과 하청업체 책임자 14명이 기소됐으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그들은 위험을 방치하고 안전을 무시하며 비정규직 고용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기형적인 고용구조와 위험의 외주화로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이들을 그냥 두지 말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당 제정하라”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도 “하역기 스크루 반출정비 업무는 한국서부발전이 발주해 신흥기공이라는 하청이 수행하는 업무였다. 신흥기공은 화물노동자에게 운송 업무를 맡겼고, 화물상차는 또 다른 하청업체가 장비를 이용해 적재했다. 스크루를 화물차에 싣는데 3개 회사 소속의 노동자가 함께 작업할 이유가 있는가. 복잡한 고용구조는 책임과 권한의 공백을 만들어내고 노동자가 다시 목숨을 잃는 참극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김한주 기자 hanjukim25@gmail.com